

파견기간	2021-1학기	교환학생 귀국 보고서	소속	공과대학
파견국가	미국		성명	안정호
파견대학	UT Austin		작성일	2021.08

1.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a.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어려서부터 나중에 미국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생이 되고 나서 미국 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교환학생을 다녀온 분들이 매우 만족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기회가 된다면 교환학생을 가고 싶었습니다. 4학년이 되고 이번이 아니면 교환학생을 가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2021 봄학기에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은 했지만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b. 미국과 UT Austin을 선택한 이유

미국으로 국가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미국 생활을 해보고 싶었고 언어 또한 타 국가에 비해 어려움이 덜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선택한 후에 학교를 선택할 때 우선 후보 학교들 목록에 있는 여러 학교들을 검색해봤습니다. UT Austin은 그 중에서 좋은 학교인 편이었고 또한 여러 명을 뽑기 때문에 서로 정보 공유도 할 수 있고 미국 생활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또한 날씨가 대체적으로 좋은 점도 선택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2. 세부 경험 내용

a. 준비 과정

2020년 여름에 서울대 국제협력본부에 교환학생을 신청하고 합격하면 담당자분께서 기본적인 지원 정보가 담긴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거에 맞춰 UT international office에서 요구하는 영문 성적표, 영어 성적표, 잔고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UT Austin 측에서도 교환학생이 합격이 되면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비자면접에 필요한 DS-2019 서류를 발급해줬습니다. 이 서류를 받고 비자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비자 면접에서도 간단하게 미국에 왜 가는지 어떤 공부를 하는지 등의 기본적인 정보만 질문했습니다. 비행기 표의 경우 인천에서 오스틴까지 가는 직항편이 없어 경유하여 가야합니다. 저는 시카고에 지인이 사셔서 미국에 미리 입국해서 시카고에서 약 2주 동안 지낸 후 오스틴으로 갔습니다. 오스틴에 가서 기숙사에 들어가고 OT와 수강신청에 필요한 어드바이저와의 상담을 했습니다. 수강신청의 경우 여러 bar들을 제거해야 할 수 있습니

다.

미국에서 거주형태는 크게 기숙사, Co-Op, 렌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숙사에 살았는데 여러 기숙사 중에서 Jester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같은 건물 내에 식당, 마켓, 패스트푸드 점, 카페 등 여러 편의 시설이 있었고 도서관과 체육관이 근처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동안 편리했습니다. 이 기숙사는 신입생들이 많이 배정받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행사들 또한 많았습니다. Co-Op과 렌트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아서 많은 정보가 없습니다.

b. 학업

미국에서 Full time student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 12학점을 수강해야했고 저는 1학점짜리 운동수업 하나와 3학점 수업 4개를 수강했습니다. 운동 수업의 경우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P/F로 바꿀 수 있었고 타 수업 또한 코로나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개인의 선택에 따라 A-F의 평가와 P/F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들은 비대면 또는 hybrid였습니다. Hybrid는 학생의 선택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선택할 수 있는 수업들이었습니다. 수업들의 경우 대체로 조교와의 세션을 학생들이 많이 이용했고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들끼리 단체톡방 같은 것이 있어 거기서 서로 질의응답도 하고 시험 퀴즈 등의 정보를 주고 받았습니다. 시험의 경우 미국은 상대적 절대평가여서 수업을 잘 따라가기만 하시면 성적에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extra credit 기회가 많아서 이 기회를 이용하시면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 기숙사

원래 기숙사는 보통 2인 1실인데 코로나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많은 방들이 1인 1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을 넓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기숙사 층 같은 경우는 여러 행사들이 있어서 처음에 친구를 사귀기 좋았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시게되면 meal plan이 포함되어있어서 식사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됩니다. 많지는 않지만 다양한 메뉴들이 식당에 있었고 1시간마다 갈 수 있어서 간단하게 간식 먹으로 가기도 하고 물과 음료수 또한 식당에서 모두 구할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 지하에 탁구장과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걸어서 2분거리에 PCL이라는 도서관과 체육관이 있습니다.

d. 학업 외 활동

아쉽게도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동아리들이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국제학생모임 같은 곳에서는 참여는 잘 안했지만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UT Austin에는 한국학생들이 꽤 많은데 texasuka라는 한인 동아리에서 미국생활에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유카 소속 축구 동아리 레드데빌즈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축구를 했습니다.

e. 교통

학교 학생증이 있으면 오스틴 시내버스가 무료였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면 많은 곳들을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lyft나 uber를 이용할 수도 있고 저는 친구들한테 라이드를 부탁하거나 한국에서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아서 쏘카처럼 시간 단위로 차를 렌트하여 장을 보러가고 했습니다. 오스틴은 차가 많이 없고 운전하기 쉽고 편해서 큰 어려움이 없이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f. 물가

오스틴이 미국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가가 싼 편이라 했는데 한국과 비교하면 비싸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팁 문화가 자리잡아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음식 값 외에 약 15%의 팁을 생각하면 최소 \$15달러는 소비했습니다.

g. 음식

음식의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음식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특히 텍사스 주에만 있는 Torchy's Tacos라는 음식점에 자주 갑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았고 매우 맛있었습니다. 한식의 경우 학교 앞에 k bop이라는 음식점이 있고 한양마켓과 h mart라는 한인 마트가 있습니다. 한양마켓은 h mart에 비해 학교에서 가까운데 h mart를 가시면 더 많은 것들이 있었고 음식점들도 많습니다. 한 번씩 한식이 생각나면 가서 먹거나 햇반 라면 등은 한 번씩 마트 가서 사왔습니다.

h. 통신사

미국에는 여러 크고 작은 통신사들이 있는데 저는 at&t라는 통신사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알뜰폰 통신사 같은 것을 이용하면 매우 저렴한 가격에 많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I. 환전/은행

저는 한국 시티은행에서 Global Wallet이라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카드에서 한화를 미화로 바로 환전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 UFCU에서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의 토스처럼 venmo, cash app을 이용하는데 한국카드로는 연동이 되지 않아서 미국에서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현금을 필요할 때는 미국 시티은행에서 인출하면 저렴한 수수료로 현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코스트코에서는 마스터 카드가 안 되고 비자카드만 사용가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j. 여행

미국은 3월에 1주일의 봄방학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이용해 서부 여행을 다녀왔고 텍사스에 있는 휴스턴, 달라스, 샌 안토니오 같은 큰 도시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짧게 다녀왔습니다. 샌 안토니오는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에 가깝게 있고 휴스턴과 달라스는 3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데 운전해서 가는게 제일 좋지만 고속버스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를 이용하면 개인적으로 무서워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기 전 2주 학기 후 한 달 정도 미국에 더 체류했는데 학기 전에 중부여행을 다니고 학기 후에 동부 여행을 했습니다.

3.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약 6개월 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고 매우 만족했고 미국에 더 있고 싶었습니다. 많은 경험을 했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학부생활 때 잊지 못할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